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 의견서

경기도는 오는 10월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개관한다.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7천7백㎡ 규모로 건립한 경기도서관은 광역대표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서관 조직으로 3급 담당관 신설을 결정하고 관련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개관을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의사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나 5월 1일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2024년 8월 경기도의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추진에 도서관계가 일제히 반대하였고,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공성과 책임성은 대표도서관의 최우선 가치이며, 명실상부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전국 최초 ‘도민 참여형’ 경기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서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기존의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고, 경기도서관 3급 담당관 신설을 포함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다.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 도서관정책을 총괄할 책임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도서관 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11일 경기도의회는 제383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반려하였다. 경기도서관 3급 담당관 신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제동을 건 것이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가 정책 개발의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서관 시설의 운영 기능까지 함께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를 담당관 기구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공공도서관 또한 2024년 기준 323개 관이 소재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선도적인 공공도

서관 정책을 펼쳤으나, 광역대표도서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지정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경기도서관 건립을 통해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대한 각오를 보였다.

경기도의회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서관 조직을 행정1부지사 직속 3급 관장을 둔 담당관으로 재추진을 도서관계는 두 손 벌려 환영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단, 3급 담당관 추진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사서로서, 도서관경영 경험이 충분한 자로 채용됨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건물만 완공하면 개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서를 비롯한 콘텐츠 확보는 물론 각종 규정 마련과 이용자를 위한 사소한 비품까지 세심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더욱이 광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6조에 명시된 도서관 시책 수립과 시행, 도 단위의 도서관자료 수집과 정리, 보존, 지역도서관 지원과 협력사업, 조사·연구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법정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현재 타 시도 광역대표도서관은 관장 직급이 4급에 불과하여 관장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관장 직급보다 낮아 광역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협력 등 광역대표도서관 역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광역대표도서관장의 직급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조직을 3급 담당관으로 신설하는 것은 타 시도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며, 선도적인 도서관 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다.

경기도서관은 10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국의 수많은 도서관인들이 경기도서관에 주목하고 있다. 차질 없이 개관 준비를 하기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 역량 있는 전문가가 탄탄한 조직과 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기를 바란다. 또한 1,400만 명 경기도민이 염원하는 경기도서관의 성공적 개관과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 약속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20일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의회, 경기도사서협의회